

## 李대통령 “전남·광주 RE100 지원정책 만들 것”

(재생에너지 100%)

신임사무관 특강 ‘전남·광주’ 특장  
“미래 첨단 기술 산업 유치 위해  
세계·교육제도 등 다양한 지원책”  
‘균형발전’ 대대적 투자 방침 강조  
강위원 부지사 “올해 구체화 기대”

정부가 'RE100' (재생에너지 100%)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키로 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전남·광주에 대해 다양한 RE100 지원 정책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향후 정책 추진 방향과 현실화 시점에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5급 신입 관리자 과정 교육생' 특강 때 균형발전정책을 묻는 신임사무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전남·광주 RE100 산단 지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전남·광주, 이런 지역에는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재생에너지 보고니까, 거기에 재생에너지를 싸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며 “전기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미래 첨단 기술 산업들을 대대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세제든, 교육제도든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만들어보려 한다”고 RE100 산단 대상으로 전남·광주를 특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부의 국가역량 배분에서 지방에 대한 균형적 시각보다 지방에 대한 추가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예를 들면 지금은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니까 재생에너지 풍부한 지역에 기업과 산업들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제도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은 우리가 대대적으로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게 길”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계속 토론해서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RE100(재생에너지 100%)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서남권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 있음에도 전력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크다. 이로 인해 국가적 비효율이 초래된다”며 “(호남 등) 서남권이 자연스레 후보 지역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다. 울산 등 풍력발전에 강점을 가진 곳도 유리한 지역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RE100 산단에 ‘규제 제도’와 교육·정주여건 개선, 지산지소(地産地消)를 반영한 산단 기업에 대한 공격적 전기 할인 혜택을 지시했다.

RE100 산단은 입주 기업이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산업단지다.

RE100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는 애플, 구글,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글로벌기업을 비롯해 이들 기업에 부품·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국내 주요 기업들을 유치해 RE100산단을 에너지 신도시로 확장한다는 게 대통령의 구상이다.

이와 관련,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이날 기자와 만나 “특별법 제정을 거쳐 올해 안에는 RE100 산단이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전남지역 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기자



‘민생쿠폰’ 지급 준비 15일 오전 광주 북구 민생경제과 경제정책팀 직원들이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행을 앞두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남 TF 종합 상황실을 준비하고 있다. 1·2차로 나눠 추진되는 ‘민생쿠폰’은 오는 21일부터 신청 접수와 지급을 시작한다. ▶관련기사 2면 /김애리기자

## 당정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 완화”

역대 최고 폭염 예측...추진 상황 지속 점검

정부·여당이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해 이른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목포)은 15일 정부 관계자와 당정 협의 이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당은 폭염 상황에서 전력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7월1일부터 취약계층에 70만1천300원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일괄 지급한다”고 말했다.

또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월 최대 2만원으로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재 한국전력에서 시행 중인 여름철(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 완화 제도에 관해서도 소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기요금 1단계 적용 구간은 기존 200kWh 이하에서 300kWh 이하로, 2단계

구간은 기존 201~400kWh에서 301~450kWh로, 3단계 구간은 기존 401kWh 이상에서 451kWh 이상으로 완화했다.

한전은 이 같은 누진 구간 완화제도를 2019년 여름철부터 상시화해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역대 최고의 폭염이 예측돼 전력 당국은 이번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가 97.8GW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당정은 전력 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폭염 상황에서 국민이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기후 위기로 인한 폭염이 매년 발생할 우려에 대비해 장기 대책도 수립키로 했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기후 위기에 관한 기본법도 만들어 폭염 등에 대응 하지는 의견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관계 기관과 함께 폭염 대책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폭염 심터 운영 실태 현장점검(행정안전부), 폭염 안전 대책반 가동(고용노동부), 농작물·

가축 피해 최소화 태스크포스(TF) 운영(농림축산식품부) 등 부처별 폭염 대응 상황을 수시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 수석부의장은 “폭염 피해와 관련한 물가 상황도 정부가 계속 모니터링 중이며, 물가(폭 등)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 3%를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기업 이사의 총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총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담겼다.

상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도 기존 1/4 이상에서 1/3 이상으로 확대된다.

주요 내용 가운데 이사의 총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비사법계열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의원이거나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을 막지 못하게 하는 계엄법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진수기자

**Today**

내년 지방선거 누가 뛰냐...‘무안군수’ 5면

조선지식인 공론정신을 ‘현대기술’로... 12면

ACC수장고초공개...‘포화화유산과만남’ 15면

득점권타율0.257...찬스서 한방 과제로 16면

### 12회 무등산 문학백일장

광주매일신문과 광주시문인협회는 호남 향토문학 정신을 계승하고 지역의 문학 미래를 이끌 참신하고 역량 있는 문예인을 발굴하고자 제12회 무등산 문학백일장을 개최합니다. 무등산 문학백일장은 무등산과 호남 등 지역 향토성 관련 자유 주제와 가사문학을 통해 향토문학을 발전시키고 예향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더욱 더 승화시키기 위한 일원입니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의 의미와 역사적 사실 등을 새롭게 풀어내는 장이 될 것입니다. 한국문학의 미래를 짊어질 예비 문인의 등용문이자, 창작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이번 백일장에 글쓰기와 문학에 관심 있는 청소년을 포함해 대한민국 국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주최·주관 **광주매일신문** · **광주광역시문인협회**

**응모 부문**

① 시 ② 산문(스토리텔링)

**작품 주제**

① 무등산 및 지역 향토성 관련 자유주제  
② 가사문학 관련 자유주제  
(스토리텔링은 인물, 플롯, 주제가 담겨있는 창의적인 작품)

**응모 방법**

- 응모대상 : 청소년(중·고등학생) 및 일반인  
- 원고분량 : 시(1인당 3편 이내) / 산문(1인 1편, 5천~6천자 내외)  
- 응모기간 : 2025년 6월 9일 ~ 8월 31일  
- 입상자 발표 : 2025년 9월 17일(수) 본사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보내실 곳 : 무등산문학백일장 홈페이지(<http://gasa.kjdaily.com>)  
- 문 의 :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9)

**기 타**

- 응모 작품 상단에 이름,주소,전화,이메일,학생부(학교명·학년) 기재할 것.  
- 기존 발표작이거나 표절 사실이 발견되면 수상이 취소됨.